17. < 괴리감에 대해서 배워보자!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상의 「날개」를 통해 알아보자~!

(윗부분 생략.)

[A]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이하 생략.)

ㅡㅡㅡㅡㅡ여기서 문제!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잘 생각해 보시고!!

---

* 여기서 개념 설명!

괴리감은 뭔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나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 근데 우리가 수능언어영역을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은 **<u>괴리감=>>> 불편함, 뭔가 좀 싫은 것</u>**으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괴리감이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언어이지만 이러한 언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 이 문제를 실었다.

지금 문제 보면 마지막 줄에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 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을 ->>> 나는 **<u>어쩔 수 없이</u>** 회탁의 거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u>체념!</u>**) 으로 읽어내야 한다.

<u>어쩔 수 없이:</u>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u>불편감</u>**을 느끼는데도 그렇게 해야한다! => **<u>괴리감!</u>**

이상의 「날개」 문제를 실은 만큼, 한 김에 다른 문제의 선지들도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자.

당시 지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40.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만큼이나 상당히 심오한 선지들이다. 만약 다른 문제에서 이러한 선지들이 나왔다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할래? 우선 ㄱ부터 차례대로 파헤쳐 보자!

ㄱ. 우선 <독백적인 어조>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① **혼자 있는 상태.**
②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가 내 말을 못 듣는 상태.**
③ **내면심리 직접 제시랑은 다른 것이야.** ex) 나는 슬펐다. <--- 이러한 것은 독백적 어조라고 보지마.
why? **독백적 어조**는 **실제 말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거든. 가령, 아!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글픈거야? <--- 이러한 것은 독백적 어조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
짱구의 생각: 화자의 생각 위주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으니 옳다고 보자 ---> 싸대기 백만대. X라고!!!
why? 이 생각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실 관련 생각이면 오히려 현실과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러면 How? ---> **현실에서 멀어지려 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보여주면 되!
이 이상의 「날개」를 보면 아내랑도 불화가 있고, 미쓰꼬시 옥상에서 본 거리를 부정적으로,⊖로 보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 회탁의 거리로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체념**과 **괴리감** 등이 나타나 있거든?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멀어지려 하는 것이지? ∴ㄱ은 참인 선지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회상 기법?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

지금 이 책에선 생략해서 그렇지 사실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음.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 앉아서 내 자라온 스물 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하 생략.)'

분명히 '회고'라는 말이 있긴 있어. 그러나! 이 내용이 제시문에서 나오진 않아. 회상 장면이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회상의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순 없어.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한다구? 현재라는 시간과 과거라는 시간이 화해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까? 만약 이게 아니고 현재의 자아와 과거의 자아가 화해를 지향한다고 적혀 있었다면, 과거에 상처받은 자아가 현재와 쏼라 쏼라를 해서 이러쿵 저러쿵했다로 논리를 이어가며 생각해볼 가치는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 당시 재수생 때 이 질문을 받아줬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러한 선지는 말 그대로 선지를 만들려고 억지로 창조한 것이라고 보아라고 하셨어. 선생님도 이러한 선지는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었거든.

32. < (보기)와 함께하는 긍정형 문제와 부정형 문제의 풀이 방법의 전형적 예시! >

2002학년도 대수능에서 두보의 「강촌」이 출제되었다.

맑은 강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 긴 녀름 江村(강촌)애 일마다 幽深(유심) 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집 우흿 져비오, / 서르 親(친)하며 서르 갓갑나닌 믌 가온대 갈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이를 그려 쟝긔판을 만들고 / 져믄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낫을 낙시를 만든다.
한 病(병)에 엇고져 하논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 ㉠**<u>져구맛 모미</u>** 이 밧긔 다시 므스글 求(구)하리오.

————————여기서 문제!

38. <보기>를 참조할 때 ㉠의 생활 모습과 내면 세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2.2 점]

<보기>

두보는 처자를 데리고 난리를 피해 굶주림 속에 곡강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의 심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강촌'이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는 거기서 너무도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뜻과 시는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고 백성을 아꼈다.

①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에 거문고를 곁에 놓고 / 사계절 흥취를 많은 꽃에 부쳤으니
이 몸도 태평시절 성은에 젖었는가 하노라. - 송타.

②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 김상헌

③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엣것인들 긔 뉘 땅에 났더니. - 성삼문

④ 이 몸이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 / 서호 옛집을 다시 쓸고 누웠으니
일신이 한가할지나 님 못 뵈어 하노라. - 이총

⑤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 붉은 노을 가득하니 이 진정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 김득연

잘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고민해봤자 ① 아니면 ④으로 갈거야. 여기서 핵심 개념은 이 문제는 **긍정형 문제**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를 참조할 때 가장 옳은 말 찾기지? 이 때는 <보기>와 반대되는 놈은 일단 정답 안되. Why? <보기>를 참조해서 가장 옳은 놈 찾으라고 했는데, <보기>참조 안한 거잖아! 이거 문제 푸는 법 정리해줄게.

긍정형 문제 유형
1. <보기>를 **참조**해서~ : **<보기>내용과 정면 반박되면 x**. **<보기>와 호응**되어야 함.
2. <보기>의 **관점**에서~ : 아예 **<보기>말을 잘 따라야** 함.

부정형 문제 유형
1. <보기>를 **참조**해서~ : <보기>의 내용이 제시문과 직접 연결되는, 가령 시로 치면 그 시를 해석하는 <보기>라면 <보기>에 따라서 골라 줘야 함.
다만! 그게 제시문과 직접 연결되는 <보기>가 아니라면?
가령 시 내용을 해석하는 <보기>가 아니라, 시 작가의 생애만을 다룬 것이라면? 그건 <보기>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 이 경우가 바로 왼손은 거들 뿐! -> 보기는 거들 뿐 이란 거지. (이 부분은 긍정형이든 부정형이든 둘 다 통하는 내용.)
2. <보기>의 **관점**에서~ : 아예 **<보기> 말을 잘 따라야** 함.

지금 이 문제는 긍정형 문제에서 <보기>를 참조하는 유형이야. ∴<보기> 내용과 상충되는 놈은 틀린거야!

①이 답이 안되는 이유는 ①에서는 버림받았다는 내용이 없어. ①은 그냥 아 너무 만족스러운 삶! 태평성대구나! 임금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여. 이건 <보기>를 전혀 참조하지 않은 것이야.

④을 봐! ④엔 처음부터 나오잖니? 이 몸이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 -->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보기 내용과 상응하지?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나 여전히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또 보기 내용과 상응하지? 이렇게 보기 내용과 상응하니까 가장 적절한 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물론, 가장 중요한 **제시문-선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지! 제시문에서 보면 아주 한**적한 강촌의 삶**이 등장하지? ④제시문에 **일신이 한가할지나** 나오지? 여하튼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④이 답으로 나오게 되.

<보기>와 연관된 시 문제들을 더 연습해보고 싶다구? 그래서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을 담아 33번 파트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실어봤습니다.
보시죠!

33. < 제시문과 직결되는 보기 문제 풀이 방법! >

2004학년도 9월 평가원의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통해 알아보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여기서 문제!

문제: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위 시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백골: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묵상의 대상　　방: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 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

① '백골' 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② '방' 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이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③ '어둠' 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④ '바람' 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⑤ '개' 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잘 생각해보시고!!

일단 답은 ④이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이게 보기형 문제의 초창기 문제라서 다소 어색한 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내용만 뽑아내고 가자.

파트32에서 이렇게 부정형 문제인데 제시문과 보기가 직결, 다시 말해 보기가 제시문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 것일 때, <보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보기>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해. 자! 당시 내가 질문 했었던 내용을 적어볼게. "선생님, ④이 답인 이유가요, 풍화 작용하는 놈은 백골이지, 아름다운 혼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백골≠아름다운 혼인 이유는 4번째 줄에서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로 딱 2개로 나눠 놨으니까 당연히 백골≠아름다운 혼이지요. 제 생각이 맞죠...?"

===> 싸대기!! 자! 내가 방금 적인 이 **밑줄 친 부분은 다소 장황한 것** 같지 않니? **수능에서 문제의 답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한다면, 90%이상 너가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봐라!** ↑↑↑ 이게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이다.

답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 **<보기> 보면 바람: 소멸이란 내용이 있니? 없지? ∴④이 틀린 것**이야. 이것이 딱 적정한 깊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 당시 재수생 시절 나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 아무리 보기 문제라도 '시' 자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시된 시에 보면 '풍화작용'이라는 말이 버젓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온다 ->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한다. ∴바람이 풍화작용의 주체이니까 소멸이란 것은 <보기>에 안 나와 있어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싸대기!! 이것 역시 나 자신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해석'일 뿐이다. 해석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자! 이 풍화작용이 시의 '바람' 때문이란 것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여기에 덧붙여서 ④선지의 '영혼'이 시 속의 '아름다운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것 역시 해석일 뿐이라고! Why? '**백골①**을 들여다보며 **백골②**이 우는 것이냐'를 두고 생각해보자. 이 **백골①**과 이 **백골②**이 같다는 보장이 있니? 없어! △라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내= 백골 = 아름다운 혼'으로 다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 백골=> 육체, 아름다운 혼=> 정신, 내=> 이것들의 집합으로 말이야.

∴ 정리해보면, ④에서는 소멸이란 것은 <보기>에 없는 것이니 틀린 것이고, 영혼 = 아름다운 혼? 이것은 근거가 없으니 △치고 넘어갈 것.

(그런데 왜 이렇게 까지 <보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까? **<보기>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시 자체만 보면 ①~⑤ 까지 우기면 전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시 자체로는 근거가 없다구!**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이가 시의 내용을 <보기>로 아예 해석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라고 냈던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까 해석하다가 놓친 것이 있는데,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에서 바람은 풍화작용의 주체가 아냐!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바람을 두고 저런저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소멸의 내용은 뺄 수 있었던 것이지. + 그리고 ①을 봐봐. <보기>가 없었더라면 백골 보고 정결한 삶? 말이 되니 이게? 아니지? ㅇㅋ!)

52. < 2차 추론? => 했다가는 아주 주옥 되는 거야! >

2005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30~33번 지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제되었다.

「만장(萬章)이 물었다. "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적에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狂簡)하고 진취적이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狂獧)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狂獧)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獧)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

"공자께서는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러워 하지 않을 자는 바로 향원(鄕原)이다. 향원은 덕(德)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합니까?"

" '[광한 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이하 생략) 」

ㅡㅡㅡㅡㅡ여기서 문제!

위 글의 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은혜: '중도(中道)의 인물' 이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겠군.

⑤ 수영: '견(獧)한 자' 는 깐깐해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잘 생각해보시고!!

답은 일단 ②이다.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 답은 ⑤인 것 같아. 왜냐면 깐깐하다는 것은 ⊖어감이고, 도도한 것은 왠지 ⊕어감이라서.

===> 싸대기!! Why? 우리나라 말에는 **어감**이란 것이 있어. 그래서 도도하다와 깐깐하다의 어감 상의 차이는 명확하게 말하긴 힘들어. 허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 뭐? '**혼자**'라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라는 거지.

지금 문제는 **부정형 문제**야.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능성만 있다면 넘어가야 해.

∴ ⑤은 맞다고 보고 넘어간다. 정 못믿겠으면 △치고 넘어가던지.

자! 이제 대망의 ②이야. 도대체 ②이 왜 정답인걸까?

현실적인 풀이: 중도의 인물은 공자가 얻고 싶어하는 **⊕인물**이야. 하지만! ②에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야. ∴**상충**되니까 ②이 답이야.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 어라? **중도=중간길 ∴중도의 인물이란 것은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 **싸대기!!** Why? **2차 추론**이야. 예를 들어볼게.

철수는 착해. -> 착하면 남들 말 잘 들어줘. -> 그러다 보니 철수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은 지금 이 예시가 범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 원리가 똑같아.

물론 지금 내가 제시문 뒷부분을 생략해서 그렇지 사실 이 제시문 전체에서 '중도의 인물'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적어놓은 저 부분이 다야. 저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되.

중도의 인물 : 1.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난 딱 중간이 좋아! => **주관이 뚜렷**한 거지! '중간'을 추구하는 거니까.

2. 이것도 관심없고, 저것도 관심 없어. =>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거지!

즉! 논란의 여지가 딱 나오니까 네 맘대로 2차추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거가 없다면 제시문의 중도의 인물은 딱 중도의 인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구!

따라서 ②같은 추론은 확실히 답인 선지이므로 ②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했어!

67. < 개요 고쳐쓰기 문제의 기본 원리 >

2003학년도 대수능 문제에 다음과 같은 고쳐쓰기 문제가 출제 되었어.

(나)

서론 :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문제>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론: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② 본론: 국제적 분쟁은 서로 충돌하려는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본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④ 본론: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⑤ 결론: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내가 짚고 넘어갈 선지는 정답인 ①이다. ①이 도대체 왜 틀린걸까? ① 내용 자체는 상황이 아니라 '**원인**' 이야.

∴본론에 더 잘 어울린다고!

원래 이러한 개요표 문제에서는 **서론에는 문제 상황**만 던져 준다구! 서론부터 원인을 던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 그러한 원리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파트를 정리한 거야.

개요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게!

문법.

70. <높임법>

1. 주체높임 :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봐.
2. 객체높임 : 목적어, 부사어를 높인다고 봐. (여기서 핵심은 '부사어' 도 객체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몰라서 한참 고민했었음.)
3. 상대높임 : 대화를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높임법이라고 봐.

1. <주체높임>

실현 방법- ① 조사: 께서

② 선어말어미: 시 **(보통은 이 ②방법으로 주체높임을 많이 실현하지.)**

③ 특수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직접높임: 주체를 직접 높여!

ex)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간접높임: 주체의 소유물, 신체부위 등 주체와 연관되는 것을 높이는 것이다.

ex)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씀이 많으시다.

*주의점은 선어말 어미 '시' 는 사용가능하지만, 특수어휘는 사용할 수 없어

ex)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o)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x) <---특수어휘 사용해서 틀린 것.

*참고! 말하는 이가 주어가 되면 주체 높임을 쓸 수 있을까?

===> 정답은 x. ex) 내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겠습니다. (x)** (응...? 이상하지 니가봐도?)

*참고! 말을 듣는 사람이 문장 속의 주어보다 높은 사람이면 '시' 가 안쓰여!

ex)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o)

돌아오셨습니다.(x) 이러한 것을 압존법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둬.

2. <객체 높임> ---어미를 통해 실현 되는 것은 아냐!

실현 방법- ① 조사: 께

② 특수어휘: 드리다, 여쭈다, 모시고 오다, 뵙다 (보통은 ②처럼 특수한 동사를 통해 실현.)

ex)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 '모시고' 라는 높임의 말은 문장의 주체(주어)인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라는 객체(목적어) 때문에 온 것 이니까 객체 높임법!)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 이 예시가 좋은 것이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 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를 높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선생님' 이라는 부사어 때문에 드렸다' 가 왔어.)